

이코노 & 비즈 피플

이 학 재 (주)아로마라이프 회장

코스닥 랠리에 주식갑부 64명

700선 돌파 상승에 4개월새 1000억원대 16명 늘어

“속옷은 내의 넘어 몸 위한 화장품입니다”

원사에 발열 물질 첨가 체온 높이고 인조탄성섬유 사용 신축성도 8배 창업 8년만에 지난해 200억원 매출 국내 최고 ‘기능성 속옷’ 자리매김



계 세분, 입는 이에게 최상의 피팅감을 제공한다. 여성 ‘올인원’의 경우 한 벌당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제품도 있는데, 이는 착용감을 극대화 하기 위해 소비자의 체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남성들은 스포츠에서부터 엑스라지런 속까지, 여성 제품은 키와 가슴 사이즈, 외형 사이즈까지 구분해서 제작한다”며 “그래서 한 디자인에 사이즈 종류가 100여개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생산된 기능성 속옷은 광주를 넘어 전국에서 입소문을 타고 팔려나가고 있다. 창업한 지 8년밖에 안됐지만 지난해 매출은 200여억원을 넘어섰다. 광주에서 시작, 국내 최고의 기능성 속옷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대기업의 틈새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아로마라이프는 관련 종사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전국에 1000여명에 이른다. 속옷시장에 로드숍을 도입, 4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 것도 이 회장이 최초다. 이 회장은 “기능성 속옷을 만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 속옷업체가 전국에 20여곳이 있는데, 이중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다”며 “이를 발판삼아 중국과 일본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속옷은 입자마자 품질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제품신뢰에 가장 큰 공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안에 자체 공장이 있어 소비자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고, 디자인 등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로마라이프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속옷은 단순한 내복 개념이 아닙니다. ‘내 몸을 위한 파운데이션(화장품)’이요,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다가서는 게 우리 회사의 철학입니다.” 광주의 기능성 보정속옷업체 (주)아로마라이프의 이 학재(56) 회장은 속옷에 ‘1도의 마법’을 구현, 국내 최대 규모의 기능성 속옷업체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그가 말한 1도의 마법은 속옷 원사에 발열 물질을 첨가해 착용시 체온을 1도 가량 높이는 기술이다. 이 회장은 “체온이 1도 상승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면역력이 5배가량 상승한다”며 “디자인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하는 속옷이야말로 장수시대에 맞는 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말처럼 아로마라이프가 생산하는 속옷은 여는 속옷과 다르다. 일본 도오세사의 인조탄성섬유(전연섬유보다 신축성이 7~8배 뛰어나다) 라이크라 원단을 수입,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한다. 여기에 열로 가공을 통해 속옷은 자체적으로 천연 열적외선을 방출한다. 맞춤형 속옷답게 사이즈 또한 크

코스닥이 700선을 돌파하는 랠리를 펼치면서 1000억원대 코스닥 부자의 탄생이 줄을 잇고 있다. 2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는 모두 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벌닷컴이 관련 기록을 조사한 이래 최대 규모다. 연초만 해도 천억원대 코스닥 부자의 수는 46명 그쳤으나 4개월 만에 18명이 늘어났다. 이들 64명의 주식 자산은 올해 들어서만 2조3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코스닥이 거침없이 상승하며 백억원대 부자에서 천억원대 부자로 올라선 자산가 여럿이 눈에 띈다. 김관길 삼성엘엔에스 회장의 주식 자산은 현재 371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연초(982억원)보다 278.6%(2736억원)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이완진 대한뉴팜 회장(694억원→1402억원)과 김선영 바이로메드 사장(807억원→1307억원), 조정일 코나아이 부회장(880억원→1229억원), 신용

Table with columns: 순위, 성명, 직업, 4월17일, 1월2일, 증감액, 증감율. Lists top 30 stock millionaires and their performance.

‘경단녀’ 446만명 국민연금 받을 길 열린다

<경력단절여성>

보험료 추후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을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및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시행 시기는 내년 중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년간 가입한 적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현재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길이 없어 60세가 되기 전 4년간 임의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5년 밖에 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A씨는 노후에 국

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5년치 보험료인 530만원(99만원 소득 기준)을 추후납부하고 4년간 임의 가입을 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추후납부할 때에는 한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이 가입해 있는 때에 한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성실납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中 매출 30% 높일 것”

2011년 중국에서 대량 리콜 사태를 겪고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던 금호타이어가 올해 중국 시장 판매를 전년보다 30%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석 금호타이어 중국대표 부사장은 20일(현지 시간) 상하이 모터쇼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콜 사태 이후 설비를 점검하고 시장도 다시 둘러봤다”면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2011년 3월 중국에서 타이어 30만개를 리콜한 이후 매출 급감으로 고전했다. 하지만 품질 향상 노력과 함께 활발한 중국 내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조 부사장은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중국 시장 매출액은 4천500억원 가량이다. 조 부사장은 금호타이어가 중국 도로 사정이나 기후에 적합한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차급에 따라 주행거리 등이 다른 특성을 감안해 이에 맞는 타이어를 따로 출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미너 배우 류이페이(劉亦菲) 등을 모델로 기용한 스타 마케팅이나 모터스포츠 등 스포츠 마케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통망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전원' 주택지 (Rural Housing Land) with details on location, facil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매매' (Wolsan-dong, Kwangjeon Park Villa Sale) including a site map and contact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경매투자' (Auction Investment) with details on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contact information.